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정순원 베드로가니시오, 권태윤 카타리나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연재 마르코
이번주 미사 해설: 조형준 스테파노
다음주 미사 해설: 조형준 스테파노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친교실 정리: 3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14
교무금: \$ 100
매일미사: \$ 5
합계: \$ 319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월 31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8 월 7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복음 계속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요한 6,11).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17 주일]

2009 년 7 월 25 일

<제 1 독서> 열왕기 하권 4,42-44 < 먹고도 남은 것이다.>

<제 2 독서> 에페소서 4,1-6 <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알렐루야.

+ 요한 6,1-15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킨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 계속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의 성가] 시작: 329 봉헌: 62 성체: 151 파견: 400

† <말씀의 이삭>

기도중에 지구를 품다

김희진 사비나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오늘은 무슨 지향으로 미사를 드릴까?’나는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한두 가지의 지향을 정한다. 혹시 지향이 너무 많으면 몇 개만(?) 들어주실까 봐 혼자 우선 순위를 정해 꼭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여 기도한다.

학생 때는 물론 좋은 성적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기도제목으로 했었다. 20대 후반이 되면서 직장과 배우자에 대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바치는 수가 늘어났다. 항상 내가 중심이 된,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중심이 된 지향이었다. 하지만 내가 현재 하고 있는일은, 나에게 그 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하루하루 인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 우선순위는 뒤죽박죽이 되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기도하는 것으로 나만의 규정을 수정했다.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나를 그 사람의 상황에 대입하고 최대한 그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올해 초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어서 빨리 평화를 얻기를, 사형수들에게 죄를 뉘우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이(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더 이상에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최근 대량해고의 위험에 놓인 비정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서 빨리 정의를 되찾기를, 우리 사회가 사람이 존중받는 따뜻한 곳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러한 기도들을 모든 신자들이 한꺼번에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며 미사 때 신자들의 기도예를 기울인다. 어떤 기도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가 가장 자주 하는 기도가 아닐까.

미스코리아나 미스유니버시아드 선발대회에서 여성들이 바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역시 ‘세계평화’ 또는 ‘World Peace’일 것이다. 너무 흔하게 입에 담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상들을 놓고 본다면, 이만큼 절실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은 없다. 중국에서 탄압받는 소수민족을 위해, 이란에서 시위를 하다 죽은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 아무 죄 없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개발을 위해 무작정 쫓겨난 캄보디아 한 지역의 수만 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쉬운 일이다.

‘누가 네 이웃이나’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지구를 품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 <알려드립니다>

❖ 오늘 미사후 공동체가 함께 하는 저녁 식사가 있겠습니다. 공동체 저녁 식사를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성모회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미사중 7월분 2차 현금이 있겠습니다. 알려드린대로, 6월과 7월달의 2차 현금은 매디슨에 있는 Multicultural Center 도움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 성모회에서 소규모 단위의 김치 판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김치병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분의 김치병이 있으시면 성모회장 임일숙 수사나 자매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 판매와 관련해서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달 캠프때 사용한 성당 물품중 아직 소재 파악이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캠프 마치고 성당 물품을 실어 오신 교우분들 중에, 아직 물품을 댁에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사목회장이나 성모회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과 도와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학기는 9월12일날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께 알려주시면 다음학기 주일학교 준비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구역 소식>

❖ 2구역 구역모임이 공동체 저녁 식사후 이정옥 리오바 자매님 댁 (University Houses 26#D) 에서 있겠습니다.

† <오늘의 묵상>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불치병을 낫게 하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빵 몇 개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군중은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영혼은 풍요로웠지만 육신은 배고팠습니다. 군중의 동요를 스승님께서 먼저 알아채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께서서는 기적을 생각하셨고 제자들은 돈을 걱정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빵 다섯 개’는 배고픈 어른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오천 명 이상을 먹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간식이 기적의 음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요? 예수님의 손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니고 있었다면 한 사람의 음식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손’을 거쳤기에 기적의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어찌 음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온갖 ‘희로애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다면 ‘기적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교훈입니다.